

기업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장 유연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이경묵 교수
(<http://blog.naver.com/kmlee8302>)

노동시장 유연화의 대전제

-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체
 -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주체이다.
 -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 기업하기 좋은 나라
 - 글로벌 시대: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
 -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더 많이 투자하고, 다국적 기업들이 선호하는 나라가 되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근로자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소비가 늘어 경제가 성장한다. 그것이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이다.
- 노동시장 유연화
 -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중요한 축의 하나이다.

노동 시장 유연화가 필요한 이유

- 개인의 성과/생산성 = [능력 X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X 노력] X 자본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 여러 국가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일자리 증가, 실업률 감소
 - 특히 채용과 해고에 대한 규제와 채용 비용이 강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제조업 분야별 일본, 중국의 경쟁력

-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이 2019년 5월에 발표한 “미중 무역 마찰의 동향” 보고서
 - 국제 특허 공개 건수를 바탕으로 추정한 주요 제조업 분야별 일본과 중국의 경쟁력 추정
- 일본
 - 35개 제조업 분야 중 15개 분야에서 세계 1위: 제어기술, 광학, 열처리기술·기구, 환경기술, 반도체, 전기기계기구·에너지, 재료·야금, 조작(엘리베이터·크랭크·로봇), 수송, 공작기계, 직기·편기·초지기, 기계요소부품, 엔진·펌프·터빈, 표면기술, 고분자·폴리머
- 중국
 - 3개 분야에서 1위: 디지털 통신, 전기통신, 시청각 기술
 - 9개 분야에서 2위, 9개 분야에서 3위
- 한국
 - 1위를 하는 분야가 한 개도 없음

Fraser Institute의 국가별 경제 자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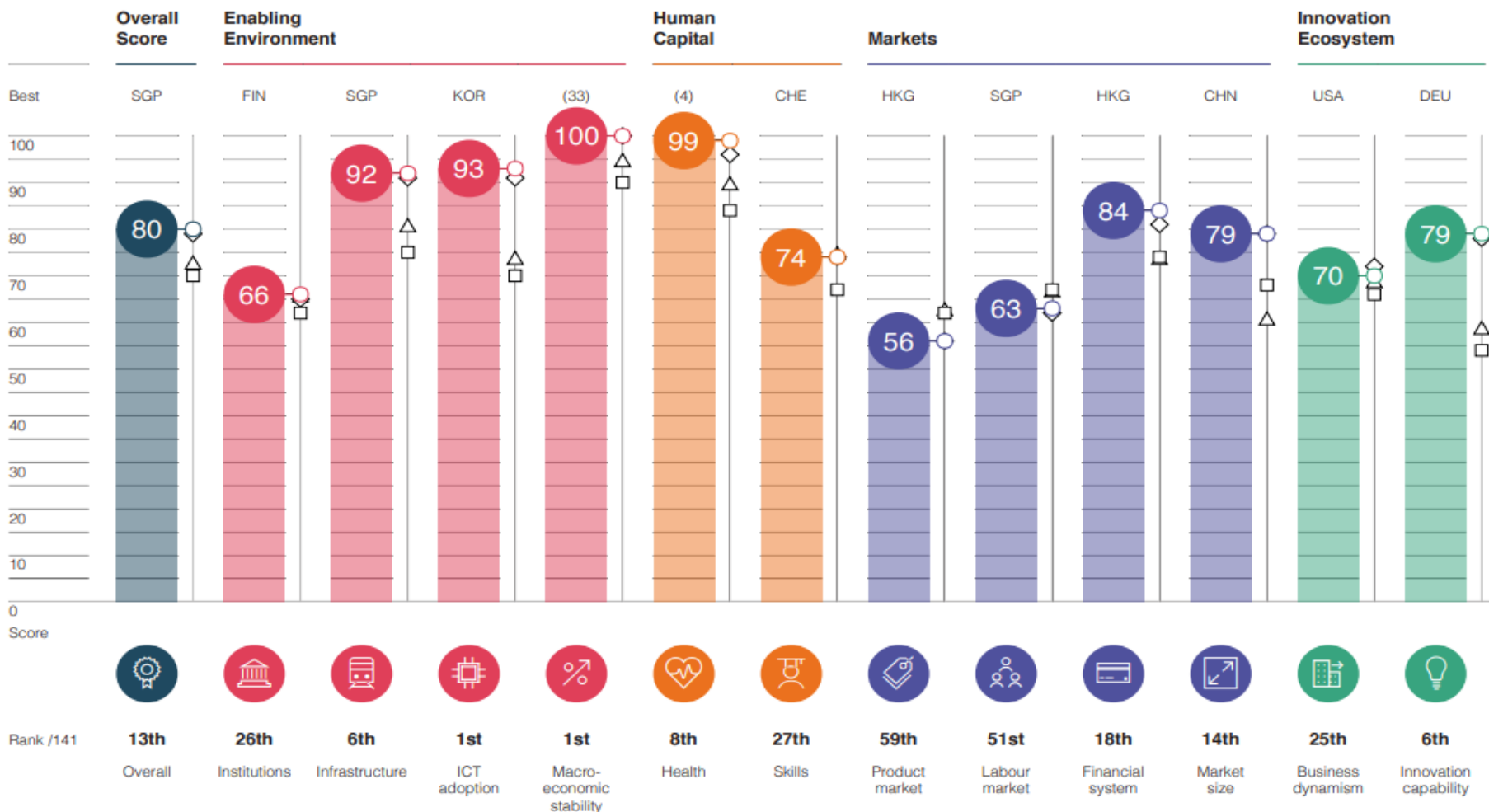
국가	등수	정부 규모	재산권 보호	안정적인 물가	국제무역 자유	규제	금융시장 규제	노동시장 규제	기업에 대한 규제
홍콩	1	4	11	19	1	1	1	1	2
싱가포르	2	18	7	7	2	3	1	31	1
뉴질랜드	3	85	2	34	5	2	1	5	3
스위스	4	41	4	1	58	9	50	23	9
아일랜드	5	90	16	61	6	10	55	22	8
미국	6	86	20	3	56	6	43	3	20
영국	9	120	14	4	10	17	100	10	15
캐나다	10	107	13	18	43	7	17	13	31
대만	12	47	27	8	51	27	67	56	22
덴마크	16	158	9	2	8	14	15	45	24
네덜란드	18	159	8	25	4	15	63	37	10
독일	20	125	19	31	38	29	93	38	13
핀란드	22	157	1	47	22	41	35	125	6
노르웨이	25	153	3	26	60	39	1	130	17
한국	35	69	34	16	62	71	49	143	32
일본	41	151	17	22	66	20	79	15	27
스웨덴	43	161	15	51	28	16	10	66	23
프랑스	57	155	24	30	32	53	37	112	38

세계경제포럼 글로벌경쟁력 지수 (한국)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4.0 2019 edition

Rank in 2018 edition: 15th/140

Performance Overview 2019 Key ◇ Previous edition △ High-income group average □ East Asia and Pacific aver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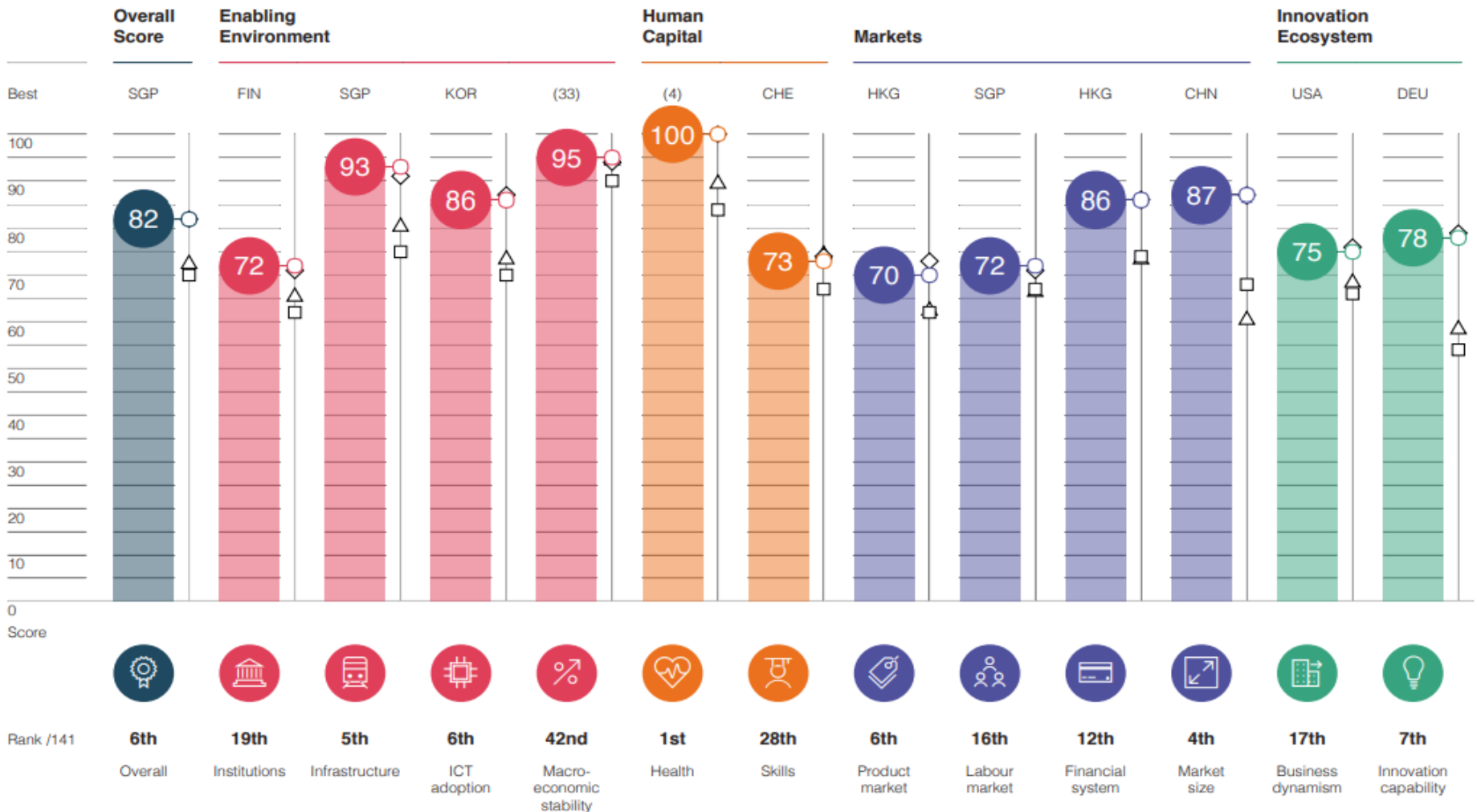


세계경제포럼 글로벌경쟁력 지수 (일본)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4.0 2019 edition

Rank in 2018 edition: 5th/140

Performance Overview 2019 Key ◇ Previous edition △ High-income group average □ East Asia and Pacific average



세계경제포럼 글로벌경쟁력 지수 (중국)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4.0 2019 e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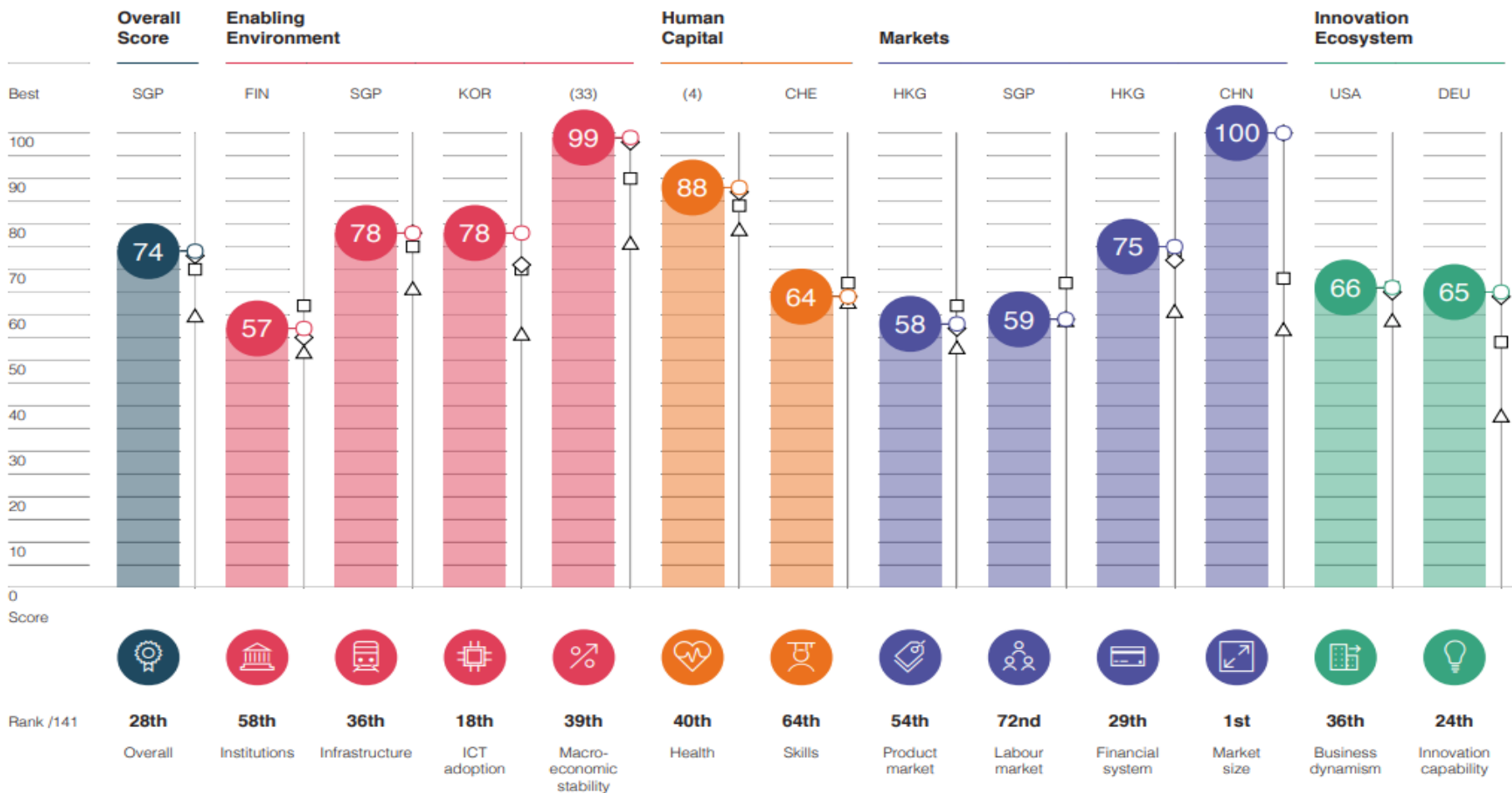
Rank in 2018 edition: 28th/140

Performance OverviewKey 2019

◇ Previous edition

△ Upper-middle-income group average

□ East Asia and Pacific average



주요 국가의 노동시장 효율성

세계경제포럼 2019년 글로벌 경쟁력 지수: 141개 국가

요소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종합 등수	51	4	14	18	72	50	9	22
해고에 소요되는 비용	116	1	100	9	116	44	25	59
채용과 해고에 대한 규제 정도	102	5	16	99	26	90	11	98
협력적 노사관계	130	21	30	5	55	92	33	7
임금 결정의 유연성	84	18	102	11	100	70	30	133
실직자 재교육 및 취업알선 정책	20	13	14	23	32	31	38	27
근로자의 권리 보호	93	81	8	18	93	12	40	1
외국인 근로자 채용의 용이성	100	31	20	77	39	53	30	90
국내 타 지역으로의 이직 정도	70	1	14	77	73	97	49	85
전문경영자 활용 정도	54	10	25	26	51	32	26	8
생산성과 임금의 연계 정도	14	5	7	33	27	61	20	36
여성의 노동 활동 참여	59	39	27	64	56	23	12	4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세금 부담	55	29	99	82	139	141	33	132

한국, 중국, 일본의 경쟁력과 노동시장 유연성

- 산업 경쟁력
 - 일본: 소재, 부품, 장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다수의 기업
 - 우리나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의 수가 적음
 - 중국: 우리와 경쟁하는 제조업에서 빠른 속도로 약진 중
- 일본의 노동시장
 - 우리보다 낮은 대졸 초임: 2017년 204,000 엔
 - 우리보다 낮은 최저임금: 도쿄 985 엔, 나가사키 762 엔, 우리나라 8350 원 + 주휴수당
 - 우리보다 높은 시간당 노동생산성: 2015년 한국 32달러, 일본 41달러
 - 우리보다 유연한 노동시간: 다양한 적용 예외 조항, 탈시간급제 도입 예정
 - 우리보다 훨씬 협력적인 노사관계
- 중국의 노동시장
 - 노동시간 규제 약함
 - 우리보다 매우 낮은 임금 수준
 - 제조업에 대한 정부의 막대한 예산 지원과 세계 최대 시장이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 문제를 완화해 주고 있음

최저임금

-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나라
 -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 우리나라
 - 1988년부터 시행
 - 2018년 6470 원 → 7530 원으로 16.4%, 2019년 8350 원으로 10.9% 인상
- 결과
 - 2018년 15.5%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음
 - 자영업자들의 위기, 취약 계층의 일자리 감소와 소득 감소
 - 일자리 감소: 자동화와 해외 진출
- 최저임금제도를 아예 없애거나 몇 년에 한 번씩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주 52시간 근무제

- 획일적인 규제로 다양한 문제 유발
 - 우리 기업 특유의 스피드 창출역량 약화
 - 연구 개발 역량 약화 → 국제 경쟁력 약화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육성 어려움
 -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전 + 다국적 기업의 직접 투자 감소
- 대안
 -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장 정산기간을 1년으로
 - 화이트칼라와 STEM 이그젬션 제도
 - Opt Out 제도
 - 1일 8시간 근로 상한 폐지
 - 근로시간 저축계좌 제도

근로계약법 제정

- 근로기준법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지 말고,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자.
- 근로자는 이직의 자유를, 사용자는 해고의 자유를!
 - 정규직 과보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자
 - 근로자들의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기업 국제경쟁력 약화
 - 일자리 감소
 - 정의롭지 않은 사회
 - 노사관계 악화
 - 취약계층 확대

해고 유연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

- 통상해고가 불가능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 비정규직 확대
 - 최소한의 정규직 채용
- 2017년 미국과 우리나라의 해고율 비교
 - 우리나라: 순수피보험자 12,958,825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획득 940,183명. 해고율 7.26%
 - 미국: 실업보험 가입자 1억 4015만 명, Initial Claims 12,808,108 명, First Payments 5,770,300 명. 수급 신청 9.1 %, 수급 4.1 %
- 직무열정 (www.effectory.com)
 - 미국 7.3, 독일 7.1, 스웨덴 6.7, 우리나라 6.5, 일본 5.8
- 고용보험 강화 필요
 - 2019년 일당 60,120 원 ~ 66,000 원, 최장 240 일
 - OECD국가 중에서 소득 순대체비율이 매우 낮은 나라임

Q&A

e-mail: kmlee@snu.ac.kr